

[자료] 예비창업패키지 꿀팁 - 협

시작하기에 앞서

5000만원 받으려면 5000만원 어치 노력은 해야함. 쉽게 되는 것 아님.

본문 디테일

I. 작성 준비 및 문서 작성 원칙

1. 본문 착수해서 쓰기전에 하이레벨 스토리 조금 먼저 정리.
 - a. 하이레벨 스토리가 흔들리면 본문을 꽤 많은 범위로 고쳐야 함.
 - b. 문서 작성을 착수하기 전에 좋은 페이퍼들을 몇개 보면서 감 잡기.
2. 개념은 그림과 모식도로 표현.
 - a. 글만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름 그림이 반드시 있어야 함.
 - i. 이것은 문서인가 PPT인가 발표평가 자료가 이미 준비되어있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림 많아야. (표 = 그림으로 간주)
 - b. 나중에 R&D 과제가면 그림 하나 표 하나 만드는데 몇십 몇백만원 태우기도 할 정도로 정성을 다함.
3. 글은 개조식으로 작성.
 - a. ~했음. ~함. 일관성있게 통일.
 - b. 페이지도 웬만해서는 딱 떨어지게 맞추는 것 추천.
 - i. 시장 → 2페이지 할당 →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.
 - c. 줄간격, 문단간격, 문단위계 등 각 맞추기 (= 웬만해서는 '한글/워드' 로컬 추천)
 - i. 최종 PDF 출력할때 [1] 이미지 깨지지 않고 [2] 용량 초과되지 않도록 압축 염두
 - ii. 그림이 많이 들어가면 ... 압축이 필요한데 ... 그림이 깨지면 안되는데 ... 제한 시간내 제출.

II. 사업 개요(개념·서비스 그림이 포함된 앞 1~2p)

1. 개요 1~2p만 보면 다 알수있게.

- a. 이 두장만 봐도 일단 페이퍼 16p 정도가 하고자 하는 말이 다 전달되어야 함.
 - b. 이런 서비스 만들겠다 상상해본 것으로 안됨. 이미 런칭해서 판매중인 것 처럼 보여야 함.
 - c. 돈냄새 나거나, 사회적 공헌이 조금 되어야 함.
 - i. 돈냄새 → 좋은 시장, 좋은 문제 정의, 트렌드
 - ii. 사회적 공헌 → 도박자를 위한 앱 X, 도박중독자를 위한 앱 O
-

III. Evidence 및 시장·실행력 근거

1. Evidence 필요

- a. 내가 이 아이템에 얼마나 몰입하고 있는가. 에너지가 느껴지는가.
 - i. 일례로, 정한 그 아이템에 대해서는 강 일반인 아니고 찐 전문가여야 함.
 - b. 이 사람은 이미 MVP건 뭐건 직접 만들고 이미 진도를 나갔구나.
 - i. 유저들이 우리 가설에 이렇게 액션해서 이런 숫자를 보여줬다. (=마케팅 용어)
 - 1. 우리가 n명에게 x를 통해 outbound해서 m명을 유입시켰고 그 사람들중 몇명이 유입되었고 몇명이 전환되어서 CTA인 ~를 수행했고 그 중에 k명이 결제를 했음.
 - c. 이 사람은 돈 안줘도 자기 돈 태워서 사업할 정도로 절실하구나.
 - d. 특허를 출원했거나, 돈을 벌었거나, 유저를 모았거나 등등.
 - e. 이미 특정 기업과 협업을 했거나 (MOU 문서), 판매한 이력이 있거나 (PoC 등)
 - f.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시장에 대한 숫자를 제시
 - i. 트렌디한 사회적 배경과 맥락
 - ii. 이게 왜 한국에서 필요한건지
 - iii. 기존에 있는 것들과 뭐가 다른지
 - iv. 공식 시장조사 기관은 얼마짜리 시장이라고 이야기 하는지
 - v. 그래서 나는 이 시장이 얼마짜리 시장이라고 추산하는지
 - vi. 어떤 방향으로의 확장성을 갖는지
-

IV. 팀 구성(창업자 역량·팀 빌딩)

1. 팀원 필요

- a. 본인의 이력 뽐뿌하게 적는 것은 당연하고
 - b. 혼자인 것보다 한 세네명 정도 와꾸를 갖춰두면 좋음
-

V. 실적 계획 및 지원 전략

1. 실적 예정 필요 (=기관에서 바라는 것)
 - a. 매출 이만큼 낼거임
 - b. 지식재산권/특허 두개쯤 낼거임
 - c. 시드 투자 이런 밸류로 받을거임
 - d. 채용 적어도 이 정도로 많이 할거임
2. 지원 기관 위치
 - a. 반드시 서울/경기로 낼 필요가 없음 = 경쟁률이 높아서.
 - i. 서울이라면 → 본인 섹터에 맞는 지방으로 지원하는 것 고려.
 - ii. 지방이라면 → 본인 섹터와 맞다면 해당 지방으로 내는것 좋음.

하이레벨 스토리

일단 하이레벨 스토리 잡히기 전에 아이템 그 자체는 잡혀 있어야함.
이건 예창 문서가 그러한 생각표현에 좋은 프레임워크는 아님.
예창 문서도 사실상 VC에게 주는 사업계획서랑 똑같다고 인식해야함.
⇒ 작년도 2025년도 부터 포맷 형식이 확 바뀜
어느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'구성'

빈문서

[별첨 1] 2025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양식.hwp

포매팅된 문서

<향후 제작>

- 25년도 기준으로 미리 써두면 좋음

- 단, 26년도 양식은 소폭 바뀔수는 있음

하이레벨 논리

목차 제외 개요 포함 15p 이내

- 개요 (2p)
1. P(Problem) - 문제 인식(3p)
 - a. 이게 왜 필요한지
 - i. 배경 #자료 #트렌드
 - ii. 시장 #자료 #논리적추산
 - iii. 필요한 이유 (분석, #외재적 동기, #내재적 동기)
 2. S(Solution) - 실현 가능성(4p)
 - a. 뭐만들 것인지
 - i. 만들고자 하는 제품 개념과 기능 #산출물
 - ii. 창업아이템의 장점과 차별성 #고객페르소나 #차별성 #기술 #진입장벽, 경쟁 우위
 - iii. 그것을 사업기간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 것인지 #일정 #방법
 - iv. 사업비는 어떻게 쓸것인지 (#1단계, #2단계)
 3. S(Strategy) - 성장전략(4p)
 - a. 어떻게 팔고 성장할 것인지
 - i. 비즈니스 모델 (#모식도, #마켓 포지셔닝맵)
 - ii. 마케팅 방법 (#구체적인것 여러개 #거의 이미 한 것 처럼 구체적으로)
 - iii. 사업추진 일정 (#표)
 - iv. 자금조달 계획 (#사업기간내, #사업기간이후)
 - v. 로드맵 (#그림, #1단계, 2단계, 3단계 #시장과 맵핑)
 - vi. ESG (압축적으로 조금만)
 4. T(Team/Infra) - 팀구성(2p)
 - a. 우리 팀이 어떤 자산이 있는지
 - i. 대표자 역량

- ii. 팀원 역량
- iii. 향후 뽑을 팀원 리스트
- iv. 장비 또는 협력 네트워크 등 자랑할 유무형의 자산
- 첨부자료 (페이지 제한 없으나 과하진 않게):
 - 이미지(제품·서비스 특징을 보여주는 사진·설계도 등)
 - 특허 출원 증명서류, MOU 증명서류 등 증빙자료 등

유튜브 영상

구체적인 샘플이 함께 나와있는 영상만 리스트업함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_6Lj-fGGyb8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l-bYBof6MrU>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WX0TINGCpoU>

<https://brunch.co.kr/@hunnyjun/5>

<https://brunch.co.kr/@hunnyjun/6>

<https://brunch.co.kr/@hunnyjun/7>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gunpcCWhbE>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1vy_GlCotjg

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tBFztGx4eU>